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의결안건 제250호 관련)

2021. 11. 1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11월 17일(수) 10:30~18:45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이 명 순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결과

□ 의결안건 제250호 『(주)에임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투자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당사에 ‘과태료 3억 원’, ‘기관경고’, ‘대표이사 직무정지 3월’의 부과를 예정하고 있음. 조치안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에임과 그 업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주)에임은 18년 경력의 알고리즘 투자전문가가 설립한 스타트업임. 국내 최초의 핀테크투자자문사로 2016년 12월 (주)에임 베타앱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주)에임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포트폴리오 설계 등 플랫폼 핀테크 업체로 전통적인 투자자문사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고 어플리케이션(APP) 이용자가 주요고객으로 모든 업무가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이루어짐. 고객과의 소통도 모두 온라인 블로그나 ☆☆☆를 통해 이루어짐. (주)에임의 구동방식을 말씀드리면 (주)에임은 자문포트폴리오 및 플랫폼을 제공하고 계좌 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직접적인 거래는 증권사 시스템에서 이루어짐. (주)에임은 국내 및 해외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전략만을 제시할 뿐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나 중개업자의 지위는 갖지 않음. 조치내용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검사국에서 지적된 광고는 규제대상이 되는 투자광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음. 법령상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이나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영위업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로고, 주소, 연락처, 시스템 이용방법, 업무절차 등에 관한 정보나 시황정보, 전체 영위업무에 관한 편람 등은 투자광고에서 제외가 됨.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광고의 주체가 아닌 대표이사의 언론사 인터뷰나 강연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업무절차나 일반적인 투자전략의 안내는 투자광고로 보기 어려움. 검사국에서 지적한 내용 중 ☆☆☆ 영상이 있는데 해당 영상은 ○○○○가 제작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인터뷰임. 제목도 ‘취중잡담’, ‘톡 까놓고 말하는 스타트업 분투기’라고 되어 있음. 언론사가 제작한 인터뷰이고 투자방식이나 전략 등에 대해 가볍게 얘기하는 ☆☆☆ 영상에 불과함. (주)에임의 대표이사이다 보니 그 내용 중에 (주)에임을 자랑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들에 대해서 준법감시인 심의필을 받는 등 광고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또 검사국이 지적하는 내용인데, (주)에임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임. 중간에 “금융상품은 크게 기초자산과 대체자산으로 구분된다.”, “기초자산과 대체자산 대상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등 투자방식에 대한 설명이나 조언에 대한 내용임. 특정 금융투자상품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주)에임을 홍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도 아님. 이러한 내용의 글을 반드시 광고규제에 적용하여 중징계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에 있는 TV광고의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것이 광고내용의 전부임. 굉장히 짧은 15초 분량

의 광고임. 보시기에 따라 ‘상위 1% 자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허위는 아닌지 생각하실 수도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광고 하단에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단순히 (주)에임이라는 회사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의 광고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용도 업무내용도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 결국 이런 내용을 투자광고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으나 회사에서는 금투협 심사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투협에 심사를 신청하기도 했음. 그리고 2019년 12월말에 금투협 광고심사조회화면에서 비심사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심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달에 광고를 집행하였음. 자료의 금융투자협회 비심사처리 화면을 보시면 심사결과가 ‘비심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광고를 다음 달에 집행했던 것이었음. 투자광고에 해당한다고 해도 회사에서는 이미지로 표현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 ☆☆☆ 광고는 금융투자협회의 심사대상이 아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이는 약한 형태의 광고 규제라고 할 것임. 중대한 위반사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됨. 당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은 작은 회사임. 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 자본시장법은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가 광고심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상근감사가 대표이사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당국의 공식 입장임을 금융광고규제 지침(guideline)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회사의 대표는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광고 규제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했음. 이러한 대표이사의 역

할을 보았을 때 중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건인지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제재양정에서 본 건 업무광고 규제의 불명확성을 말씀드리겠음. 침익적 처분에 있어서 제재의 근거는 명확해야 할 것인데 금융투자회사의 업무광고는 그 범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음. 상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이 특정되어 있으니까 광고규제 대상 여부가 비교적 명확할 것임. 그런데 업무광고는 대상이 영위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광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함.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등에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경우도 그것이 영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그렇다면 많은 경우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다수의 금융투자회사의 게시내용들이 다 광고로 취급될 수도 있어 보임. 물론 감독당국의 해석을 존중할 것이나 다만 그 해석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중징계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 부탁드립니다, 기존 제재사례와의 형평도 고려해 주시기 바람. 기존 투자광고 규제 위반 사례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이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의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건은 특정금융상품에 대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투자자 피해나 사회적 물의도 야기하지 않았음. 투자광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위반의 정도 그리고 투자자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는 과중하다고 생각됨. 투자자 피해는커녕 (주)에임 이용자들은 당사나 대표이사에게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음. 관련해서 자료에 보시면 (주)에임 이용자들의 감사글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음. (주)에임 이용자들은 (주)에임에 대하여 ‘에임 덕분에 경제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고 세심하게 배우게 되었다.’, ‘편하고 똑똑한 서비스’ 등 (주)에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음. 광고규제에 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 건이 3억 원이라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사제재규정에 따르면 사후수습 노력 등이 있으면 감면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회사는 검사국 지적을 반영해서 내부통제기준 심사필을 부기하는 등 시정을 했고, 그리고 TV광고 중단 지시에 대하여 즉시 광고집행을 취소하는 등 최대한 시정노력을 다 했음. 그리고 금번 조치안 열람을 통해 확인된 지적 대상 게시글들은 모두 게시 중단을 하였음. 향후 감독당국과 금투협과 협의하여 금번과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임. 과태료 면제 사유에 대해서도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검사제재규정상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과실로 인한 행위이고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생 핀테크 업체가 금융투자협회 심사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미흡했던 것이지, 어떠한 고의에 의한 것도 아니며 어떠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 비록 위반이라고 판단하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어 과태료 부과 면제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태료 면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상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 초과부분에 대한 감경조항이 있음. 당사는 자본금이 2억 5,000만 원, 자본총액이 1억 8,000만 원에 불

과한 작은 스타트업임. 당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시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경조항을 적용해서 과태료 감경을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대표이사임. 제가 7년 동안 만난 고객이 100만명임. 이분들이 아직 다 자산증식을 시작하지 않았음. 지금까지 총 700억 원의 자산을 불려드렸음. 그리고 (주)에임이 가져온 수익은 25억 원 미만임. 그것도 첫 5년 동안은 연 2,000만 원 정도의 연매출이 있을까 말까 했음.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목적이었고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지식을 알려드리려고 했음. 상위 1% 자산관리를 모두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었음. 상위 1%가 누리던 일을 정말로 했었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나라에 열렸다고 생각했음. 누적적자 15억 원에, 매년 사람들에게 300억, 500억 원의 자산증식을 해 드리고 있음. 정말로, 이 일을 우리나라에서 계속하고 싶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산운용 노하우였고,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 시장과 산업과 이곳에 중요한 점들을 잘 몰랐음. 그런데 최근에 발효된 금융투자소비자보호법 덕분에 그 경계가 더 명확해진 것 같아서 큰 희망이 생겼음. 지금은 법이 정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도 더 잘 지킬 수 있고 관리감독하는 분들, 협회 분들도 좀 더 명확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음. 그런데 제가 조금 앞서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음.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정말 할 수 있는 회사가

(주)에임뿐인 것 같음. 현재 로보어드바이저산업이 정확히 9,200억 원 정도로 늘어났음. 그중 7,800억 원을 (주)에임이 하는 일임. 그리고 (주)에임은 정말 연간 20억 원의 매출만 가져감. 사실은 저희가 정기검사를 처음 받는 회사이고, 너무 작은 회사로 직원도 5명임. 제가 18살 때부터 꿈꿨던, 누구나 가난해지지 않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주)에임이 그동안 했던 것이 투자광고냐 아니냐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인데, 대리인께서 보시기에 그동안 (주)에임이 했던 행위가 투자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 ▶ (진술인) 주된 내용이 (주)에임의 업무방식이나 업무절차, 그러한 내용도 있지만 PT자료에 담겨 있는 것처럼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내용이 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조금씩 (주)에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형태였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게시글의 내용이 (주)에임을 광고한다기 보다는 자산관리방식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형태이고 그런 내용에 에임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들어간 것은 (주)에임의 업무프로세스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됨.
-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리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간 중간에 들어간 “(주)에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주)에임과 관련된 내용이 업무절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심.

- ▶ (진술인) 아님. 그 중간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를 들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는 자본시장 사이클에 대해 설명하고 이런 개념 설명 끝에 “그러면 (주)에임은 어떻게 하느냐”, “리밸런싱이라는 것을 (주)에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음.
- (위원)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임. 블로그 게시글을 보면 대리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내용이 쪽적시되어 있음. 결국 (주)에임과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반면 AIM은 내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기초자산 투자에 있어 효과적인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단순한 회사 소개이고, (주)에임의 단순한 업무절차 제공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 ▶ (진술인) 업무절차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산정하느냐의 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에임이라는 회사의 일반론적인 브랜드 소개, (주)에임이 어떤 상품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고객한테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한 다음에 (주)에임은 이런 기초자산 투자에 있어서 효과적인 자산배분을 할 수 있도록 투자조언을 한다는 부분이어서 이런 내용들은 투자자문업을 하는 회사면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이라는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에임이 하고 있는 영위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담는 그런 광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

- (위원) 지금 투자광고 위반 46건이 적발되어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AIM SAVING 상품에 대해 ‘은행보다 안전하면서도 월등한 기대수익’, ‘만기시 원금보장’, ‘예금금리 3%, 적금금리 5.6%’ 등의 문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 (진술인) 말씀하신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고객의 문의를 받다 보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프라이빗 페이지를 만들어서 콘텐츠 링크를 드린 내용임.

-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문구는 대중(public)적으로 공개(open)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private) 접근 가능한 내용이라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본인들이 공공(public)으로 접근 가능(accessible)한 정보가 아닌지?

▶ (진술인) 이미 고객이신 분들이 기존의 포트폴리오 말고 은행금리보다 조금만 더 나왔으면 좋겠고 채권으로만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줄 수 없느냐고 하셨을 때 이런 Saving portfolio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 자료로 써 놓은 링크(link)임. 그것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음.

- (위원) 그러면 이미 (주)에임과 계약관계를 체결한 투자자들만 접근 가능한 정보이라는 것인지?
- ▶ (진술인) 그중에서도 이런 필요(needs)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접근 링크(link)를 드렸음.
- (위원) 최초 게시한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금투협에서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에 대해 심의 중인데, 이 기간 중에도 지금 계속 투자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금감원 자료에는 올라와 있음. 사실인지?
- ▶ (진술인) 저희가 조치한 열람 이후에 문제가 되는 광고를 그때 확인을 했음. 지적대상광고가 어떤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회사와 협의해서 회사가 그 즉시 대상 광고들은 게시물을 중단했음.
-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음.
- ▶ (진술인) 광고물이 어떤 기준으로 광고위반이 되는지를 알기 어려워서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음. 그리고 그 목록(List)을 받는 순간 모두 다 게재 삭제하였음.
- (위원) ‘비심사’로 되어 있는데, (주)에임 쪽에서는 판단하기를 비심사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면을 보면 금투협 담당자와 (주)에임 대표의 대화 내용이 여기에 적시되어 있음. 그런데 사실관계를 보면 먼저 (주)에임에

서 광고심의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 금투협 내에서도 규정이 있고, 심사를 한다면 적격이다, 조건부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심의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심의절차를 아예 시작 안 한 것임. 그래서 비심사라고 올려왔는데 (주)에임 대표님께서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광고를 계속하신 상황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술인) 전혀 사실이 아님. 저희는 취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그러니까 심사를 철회했고, 아마 로그기록을 보면 있을 것임. 저희는 취소한 적이 없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는 진짜로 못 알아들었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심사받지 않고 광고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그래요?”하고 저는 “그러면 내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하고 끝은 것이 통화내용임. 그리고 한 번도 취소를 못했음.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심사받지 않고 취하하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었음. 그리고 당시 저희 직원에게 금투협에서 먼저 전화를 해왔음. 그 시간을 보면 굉장히 묘한데, 저는 이것을 잘 몰랐음. 연말이라서 아마 미해결(pending) 심사 건이 남아 있는 것을 정리하려고 하셨던 것 같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연락이 와서 “비심사처리해 드릴 테니까 법인 계좌번호를 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겠다.”고 하셨다고 함.

- (위원) 그런데 여기 통화내용 녹취록을 보면 (주)에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 “분명히 지난번에 왜 심의를 넣으셨

는지 저한테 물어보셨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어서 저희는 심의를 취소한다는데 왜 그걸 소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라는 녹취록이 있음.

▶ (진술인) 말은 했지만 취소한 적은 없음.

○ (위원) 내가 심의를 취소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나한테 소명하라고 하느냐는 얘기가 아닌지?

▶ (진술인) 대표이사로서 시스템에 남는 행위(action)를 그 당시의 감정과 부딪힘으로 결정하지는 않음. 그래서 시스템로그를 보시면 저희가 취소한 적은 없음.

○ (위원) TV광고에 보면 계속 ‘상위 1%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임. ‘상위 1%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 (진술인) ‘상위 1%’라는 관용적 표현은 부자들이라는 말임. 상위 1% 아파트, 상위 1% 동네, 그러니까 ‘부유한 자산가들이 누렸던 자산관리를 모두에게’라는 뜻임. 그래서 (주)에임이 추구하는 것은 은행에 3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현금이 아니라 자산화되었으면 하고 정말 부자들은 작은 현금이라고 할지라도 자산이라는 형태로 관리한다는 각종 노하우(know-how)와 기법, 마치 3,000억 원을 관리하는 것처럼 300만 원을 관리하고 싶고 그것이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임. ‘상위 1% 자산관리를 당신에게, 모두에게’라는 것이 문구이고, 그 문

구는 말 그대로 상표(trademark)임. ‘상위 1%’로 과편화되어 해석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 명시해 드리고 싶음. 회사가 추구하는 나이키의 ‘Just do it’처럼 (주)에임의 ‘상위 1% 자산관리를 당신에게’가 신조(motto)임.

- (위원)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상위 1% 자산 굴리던 사람이거든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위 1%의 자산을 운용하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Acadian Asset Management와 Citi Group Asset Management에서 헷지펀드 자산운용한 경력이 있음.

- (위원) Acadian Asset Management와 Citi Group Asset Management에서 운용하셨던 자산이 상위 1% 자산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진술인) 금투협에 제출한 자료가 있음.

- (위원) 저는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는 광고와 금융당국에서 생각하는 광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여전히 커다란 차이(gap)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 아까 앞에서 ○위원님께서 “여전히 제재절차가 진행 중에도 광고성 내용이 여전히 계속 게시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위 1% 자산관리, AIM’ 바로 이 내용임. 여기 지적되어 있는 46건을 다 살펴보셨는지?

- ▶ (진술인) 실은 그것을 받고 어느 부분에서 투자광고로 해석되는지 알기가 어려웠음. 오늘 말씀해 주셔서,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마음에서 결정했음. 그래서 새로운 콘텐츠를 지난 2년 동안 1건도 만들지 않았음. 지나간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음.
- (위원) 금융업을 영위할 CEO로서 잘 모르겠으면 금투협이나 이런 곳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건별로(case by case) 검토를 하면서 대응을 하셨어야함. 계속 “나는 안 그런 것인데 지금 감독당국은 이렇게 제재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됨.
- (위원) TV광고 말고 나머지 건은 ‘보통’, ‘중’으로 제재를 하면 1건이 6,000만 원임. 알고 계시는지?
- ▶ (진술인) 알고 있음.
- (위원) 46건을 충분히 잘 살펴보시고 저희는 광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할만한 사항이 있는지, 광고성이 아니고 말 그대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일 뿐인데 제재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람. 그리고 아까 ‘상위 1% 자산관리’ 이런 광고가 계속 게시 중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람.
- (위원) 자료에 보면 양정과 관련해서 ‘준법감시인이 없으면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 그것도 없으면 대표이사가 수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여쭙보면 이 46건에 대해서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라고 판단했는데 사전확인을 대표가 한 것이 절차를 지켰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 당시에는 해당 부분을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다만 그런 게시글들의 내용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광고라고 해도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준하여 게시글들의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사전확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항을 따라가서 대표가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 당시에 광고로 인식을 하고 광고와 관련한 절차로서 대표가 사전에 심사했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음.

▶ (진술인) 심사가 아니라 그것을 제가 다 한 땀 한 땀 쓴 것임.

▶ (진술인) 그 게시글의 작성자가 대표이사임.

○ (위원) 그런데 제 질문은 그것을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을 의식하고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사전확인을 하신 것이냐 하는 것임.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광고로 판단하신 것인지?

▶ (진술인) 광고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금융투자상품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서 썼음.

○ (위원)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과 양정에 가서는 광고니까 그 해당 절차를 준법감시인과 감사인 등이 없어서 대표가 사전확인을 했다는 것은 2개가 서로 주장이 모순이 됨. 대리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일단은 그 당시에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음. 양정에 관한 의견에 그 부분을 넣은 이유는 이것이 위반이라고 판단한다하더라도 당시에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대표이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취지임. 일단은 광고가 아니라고 그때는 봤음.

○ (위원) 열심히 봤다는 취지이지, 자본시장법상 허위과장광고라는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이 보는 그 측면에서 그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때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셨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임. 그렇지 않으려면 광고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보셨어야 됨.

▶ (진술인) 저는 회사를 알리고자 이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니

라 사람들에게 금융투자 지식을 알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대안을 하나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만든 것이어서 그 글을 작성한 것은 회사를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음.

- (위원) 그렇다면 46건 지적사항에 대해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이 몇 건인지?

▶ (진술인) 그 광고 전체를 저희가 다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투자광고의 범위를 어디로 할지, 그 부분이 불명확한 것이 아닌가 함. 저희가 주장한다면 법에 정해져 있는 업무절차가 어떤 부분이나, 그 내용으로 확장하게 되면 광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좁게 보면 광고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될 것인데, 지금 건수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당 6,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각 건별로 위반이나 아니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크게 실익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투자광고의 규정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회사와 감독당국에 있었던 괴리, 그럼으로써 발생했던 회사의 오해나 회사의 업무 미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3억 원이라는 과태료는 감경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릴 것임.

- (위원) 46건이 광고에 해당하느냐의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임. 광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았

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다 연결되는 것임. 그런데 지금 대리인께서는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이 광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회사는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제가 준법감시인 선임을 따로 해서 건건이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 (위원) 그러면 금감원에서 지적한 46건 전체에 대해서 관련법을 근거로 왜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아님.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음. 모두 다 광고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임.

▶ (진술인) 지금 회사에서는 각 건별로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음.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회사가 금감원의 지적부분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한 사항임.

○ (위원) 그러면 광고에 다 해당된다고 수용을 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각 건별로 다투는 것은 금융감독당국과 좋은 처리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임.

- (위원) 어차피 제재심을 거친 금액이 3억 원이니까 개별 건수 다 다뤄봤자 6,000만 원으로 하면, 5건만 지적되면 3억 원인데 41건까지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실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 (진술인) 각 건별로 주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음.

- (위원) 그러면 각 건별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 회사가 생각했던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불명확함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임.

- (위원) 불명확함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광고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면 그 46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광고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임. 최종적으로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건 각각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광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술인) 알겠음. 지금 광고가 게시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고자)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투자광

고에 대해서 법률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을 수없이 설명해도 회피하는 상황이고 46건에 대한 부분도 법무법인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다 했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런 상태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연 금투업자 대표로써 과연 준법의식이, 이런 것을 맡겨도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심이 있음. 그리고 법률대리인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투자광고를 다 내렸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저희가 더 확인하고 나중에 논의를 드리겠지만 일부는 내린 부분도 있지만 전부다 수정한 것은 아니고 ‘투자심의필’ 이런 것도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상태였고 그리고 한 7건 정도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제목만 바꾼다든가,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 부분은 법률대리인께서 자료를 내면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보고자) 아마 변호인은 저희가 지적했던 광고 제목을 이것이 내려졌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을 텐데 광고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해당 광고가 내려졌는지 안 내려졌는지를 변호인이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음. 이런 식으로 일부 광고가, 46건 모두가 다 올라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광고는 여전히 게시되고 있고 AIM SAVING과 관련해서는 비공개(private)여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임. AIM SAVING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저희도 증거자료를 확보했음. 이것은 허위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음.

- (보고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도 보신 것처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금액은 충분히 있는 상황임.

- (보고자) 저희가 문제 삼는 위법한 광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산정하는데 실제 (주)에임은 이런 광고비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미 지출되어서 자기자본이 차감되어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금액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임. 실제로 회사에서의 현금납부능력은 추후의 현금흐름(cash flow)까지 감안했을 때 납부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